

## 韓醫學의 左右理論에 關한 考察

박승미<sup>1</sup> · 박희준<sup>1</sup> · 이향숙<sup>1</sup> · 손양선<sup>2</sup> · 임사비나<sup>2</sup> · 이혜정<sup>1</sup>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침구경락학교실<sup>1</sup>,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sup>2</sup>

### A Study on the Concept of the Right and the Left in Oriental Medicine

Seung-Mi Park<sup>1</sup> · Hi-Joon Park<sup>1</sup> · Hyang-Sook Lee<sup>1</sup> · Yang-Sun Son<sup>2</sup> · Sabina Lim<sup>2</sup> · Hye-Jung Lee<sup>1</sup>

*Dept. of Acupuncture and Meridianology, Graduate School of East-West Medical Science<sup>1</sup>,  
Dept. of Meridian and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sup>2</sup>,  
Kyunghee University*

#### Abstract

We could summerize the concept of the right and left mentioned in Nai-Gyung and some literature of oriental medicine as follow

At first the right and left is a directional right and left which implys left-liver-right-lung(左肝右肺), left-yang-right-eum(左陽右陰), secondly it is also the road of eumyang which implys man-left-woman-right(男左女右), left-blood-right-ki(左血右氣), left-sinsu-right-myungmon(左腎水右命門), and left-right of pulse. left-liver-right-lung(左肝右肺), left-yang-right-eum(左陽右陰) and man-left-woman-right(男左女右) are expressions of the movement of yang which is a core of chang, at the same time, left-blood-right-ki(左血右氣), left-sinsu-right-myungmon(左腎水右命門), and left-right of pulse are expressions of the eum in response to the movement of yang. (go up and down of water and fire)

Finally, both a directional right and left and a road of eumyang mean a road of going up and down of eumyang so, this is very important index in circulation and keeping ballance of eumyang (ki-Hyul:氣血) in the human body therefore, we can treat a disease with acupuncture in the use of this charater, for example when a disease occurs in the left side, we can treat it with acupuncture in the right side, the same aplys to right.

**Key Words** : Left, Right, Eumyang, Acupuncture

#### I. 緒 論

陰陽의 最初 含意는 해(日)에의 向背, 즉 向日은 陽이고 背日은 陰이라는 것에서 出發하여, 後代에 오면서 氣候의 寒暖, 方位의 上下·左右·內外·運動상태의 動靜으로 發展하였는

데<sup>5)</sup>, 이 陰陽의 對立 統一에 의한 運動變化가 一切 現象事物로 發現 觀察되는 것으로, 陰陽은 一切事物을 觀察 認識하는 手段이 되었다<sup>8)</sup>. 이러한 陰陽概念은 人體의 構造, 生理, 病理 뿐만아니라 診斷, 治療를 說明하는데 使用되면서 韓醫學의 根本理論이 되었다.

左右는 方位의 한 表現으로 上下·內外와 함께 事物을 觀察하는 陰陽의 한 認識 形態로 韓醫學에서는 南面하여 왼쪽은 左, 오른쪽은 右

· 교신저자 : 이혜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침구경락학교실, Tel. 031-201-2198, Fax. 031-204-4237, E-mail : hjlee@khu.ac.kr

로 定하고 있다<sup>29)</sup>. 「黃帝內經」의 <陰陽應象大論>에서는 “左右者, 陰陽之道路也”라하고 <五運行大論>에서는 “左右者, 間氣也”라 하여 陰陽氣의 昇降運動과 運氣의 發展을 설명하였고, <玉板論>에서는 “女子 右爲易, 左爲從, 男子 左爲易”이라하여 男左女右에 대해 言及하고 <刺禁篇>에서는 “肝生於左, 肺藏於右”라하여 左肝右肺의 基本이 되었으며, <脈要精微論>에서는 “中附上, 左外以候肝~後以候後”라하여 左右의 脈에 臟腑를 配屬하였고 <繆刺論>에서는 “繆刺, 以左治右, 以右治左”라하여 鍼治療에 까지 應用되었다<sup>29)</sup>. 以後에 難經의 左腎水右命門<sup>12)</sup>을 비롯한 「醫學入門」의 左血右氣 理論<sup>13)</sup> 등 歷代의 여러 醫家들에 의해 左右가 舉論되면서 內容이 풍부해졌다. 最近 臨床에서도 左右를 利用한 鍼治療法<sup>1)2)3)23)24)25)</sup>과 左血右氣를 利用하여 左右의 病變을 左瘀血右濕痰으로 診斷하여 治療에 까지 應用하고<sup>23)</sup>, 脈의 左右로 五臟六腑의 虛實을 診斷, 治療하고 있다. 그러나 最近 研究를 보면 國內에서는 金<sup>17)</sup>의 ‘東醫學에 나타난 人體生理 現象에 관한 考察’과 金<sup>26)</sup>의 ‘人體의 左右 구분에 관한 陰陽論의 考察’의 論文이 있을뿐 左右에 대한 구체적인 研究報告를 접하지 못하였다.

이에 著者는 人體의 陰陽氣의 升降運動<sup>29)</sup>과 氣血이 左右로 表現되고<sup>14)</sup> 臨床에 應用되고 있으므로 左右理論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이 研究에 着手하여 바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論

이 論文의 展開는 「黃帝內經」을 中心으로 한 文獻調査를 하여 첫째, 方位의 左右 둘째, 左右者 陰陽之道路 셋째, 鍼治療에서의 左右로 大別하여 文獻部分을 引用하고, 內容을 살피는 方法으로 하였다.

### 1. 方位의 左右

#### 1) 方位와 左右

#### ① 方位의 意味

方位는 人間이 지나는 空間意識의 한 形態로 歷史적으로 直立猿人의 出現과 때를 같이 하는데, 人間의 垂直的인 모습에서 前後, 左右(양옆)를 認識하고, 이에 더불어 中心과 上下를 知覺하게 되었으며, 方位設定에서 중요한 것은, 民族, 文化에 따른 무엇을 正面으로 대하느냐가 된다고 하였다. 東洋哲學의 進수로, 韓醫學과 밀접한 易에서의 方位는 河圖와 洛書에 根據한 伏羲八卦方位圖와 文王八卦方位圖로 나누어져 각기 先天方位, 後天方位라 불려지고 있다.<sup>7)</sup> 先天이라는 말은, 한 天理가 具體的 現象體로 나타날 수 있는 그 基盤的인 原理를 表象한 것을 意味하는 말이고, 後天이란 말은, 先天의 對로 天理가 變化하여 現象天을 이루고, 日月이 運行하며, 寒暑가 交流하여 作用하고 있는, 作用的 天文의 理를 意味하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先天은 空間的인 意味가 있고, 後天은 時間的인 意味가 있다. 즉, 先天은 上下左右라고 하는 것과 같은 外面的 形容을 의미한 말이고, 後天은 時間의 經過에 의하여 생기는 四時 寒暑와 같은 性能的인 面을 意味하는 말이다.<sup>8)</sup> 伏羲八卦圖, 文王八卦圖를 보면 南을 正面하여, 伏羲八卦圖에서는 乾이 南이고, 文王八卦圖에서는 離가 南이되어 左가 東이고 右가 西가 되고 있다.(Fig.1) 이처럼 南面하여 左右를 구분하는 것은, 人體의 前面이 南의 理致로 되어 있고, 後面은 北의 理로 되기 때문이다. 이는 人間의 境遇이고 마치 植物은 頭部에 해당하는 根을 下에 두고 있듯, 南面을 하느냐, 北面을 하느냐에 따라 左右는 달라져 四象의 順逆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形狀과 性質도 달라진다고 하였다.<sup>8)</sup>

#### ② 「內經」에서의 方位의 左右

##### a. 陰陽應象大論篇第五.<sup>29)</sup>

天不足西北, 故西北方陰也, 而人右耳目不如左明也. 地不滿東南, 故東南方陽也, 而人左手足不如右強也. 帝曰: 何以然. 岐伯曰: 東方陽也, 陽者其精并於上, 并於上則上明而下虛, 故使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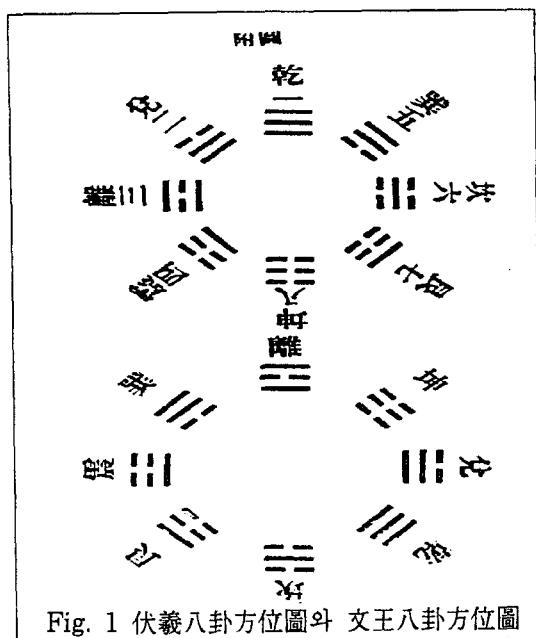


Fig. 1 伏羲八卦方位圖와 文王八卦方位圖

目聰明而手足不便也. 西方陰也, 陰者其精并於下, 并於下則下盛而上虛, 故其耳目不聰明而手足便也. 故俱感於邪, 其在上則右甚, 在下則左甚, 此天地陰陽所不能全也, 故邪居之.

:天은 陽으로 陰方인 西北方이 不足하고, 地는 陰으로 陽方인 東南方이 不足한데, 人體에서도 陽方인 左의 上部인 耳目은 밝고, 陰方인 右의 下인 手足은 便하게 된다. 즉 天地之道는 東升西降에 升者陽이고 下者陰이 되는데, 陽氣는 左를 좇아 上으로 升하므로 上盛下虛가 되어 左의 耳目이 밝고, 手足은 不便하고, 陰氣는 右를 좇아 下에 降하여 下盛上虛가 되므로 右의 手足이 强하고 右의 耳目은 不便하다. 결국 陰陽의 左右升降運動(循環)으로 人體機能의 強弱이 생김을 설명하고 있다.<sup>9)</sup>

b. 五常政大論篇第七十<sup>29)</sup>

帝曰: 天不足西北, 左寒而右涼, 地不滿東南, 右熱而左溫, 其故何也. 岐伯曰: 陰陽之氣, 高下之理, 太天之異也. 東南方, 陽也, 陽者其精降於下, 故右熱而左溫. 西北方, 陰也, 陰者其精奉於上, 故左寒而右涼. 是以地有高下, 氣有溫涼, 高者氣寒, 下者氣熱, 故適寒涼

者脹, 之溫熱者瘡, 下之則脹已, 汗之則瘡已, 此腠理開閉之常, 太少之異耳.

:左右는 方位를 가리키는데, 九宮圖의 東南方의 右面은 南으로 屬火하여 氣熱이 되고, 東方은 左로 溫이 되며, 西北方의 右面은 西가 되어 屬金으로 氣涼이 되고 左面은 北으로 屬水하여 氣寒이 된다고 하였다. 모두 南面하여 左가 東·北이 되고 右가 南·西가 되었다.<sup>10)</sup>

c. 六元正紀大論篇第七十一<sup>29)</sup>

帝曰: 四時之氣, 至有早晏, 高下左右, 其候何如. 岐伯曰: 行有逆順, 至有遲速. 故太過者化先天, 不及者化後天. 帝曰: 願聞其行何謂也. 岐伯曰: 春氣西行, 夏氣北行, 秋氣東行, 冬氣南行. 故春氣始於下, 秋氣始於上, 夏氣始於中, 冬氣始於標. 春氣始於左, 秋氣始於右, 冬氣始於後, 夏氣始於前. 此四時正化之常.

:春夏秋冬 四時氣運이 春氣는 左·東에서 西로 行하고, 夏氣는 南에서 北으로 行하며, 秋氣는 右·西에서 東으로 行하고 冬氣는 北에서 南으로 行하며, 南面하여 서있을 때는 春氣가 左에서, 夏氣는 前에서, 秋氣는 右에서, 冬氣는 後에서 始함이 四時의 바른 變化이다.<sup>10)</sup>

d. 刺法論篇第七十二<sup>29)</sup>

氣出於腦, 卽室先想心如日. 欲將入於疫室, 先想青氣自肝而出, 左行於東, 化作林木. 次想白氣自肺而出, 右行於西, 化作戈甲. 次想赤氣自心而出, 南行於上, 化作焰明. 次想黑氣自腎而出, 北行於下, 化作水. 次想黃氣自脾而出, 存於中央, 化作土.

:五藏과 左·右·南·北 方位를 연결하여, 肝은 左·東에서, 心은 上·南에서, 肺는 右·西에서, 腎은 下·北에서 脾는 中央에서 行한다 하였다.<sup>10)</sup>

e. 陽繫日月 第四十一<sup>28)</sup>

黃帝曰: 合之於脈, 奈何. 岐伯曰: 寅者, 正月之生陽也, 主左足之少陽. 未者, 六月, 主右足之少陽. 卯者, 二月, 主左足之太陽. 午者, 五月, 主右足之太陽. 辰者, 三月, 主左足之陽明. 巳者, 四月, 主右足之陽明, 此兩陽合於前, 故曰陽明. 申者, 七月之生也, 主右足之少 . 丑者, 十二月, 主左足之少 . 酉者, 八月, 主右足之太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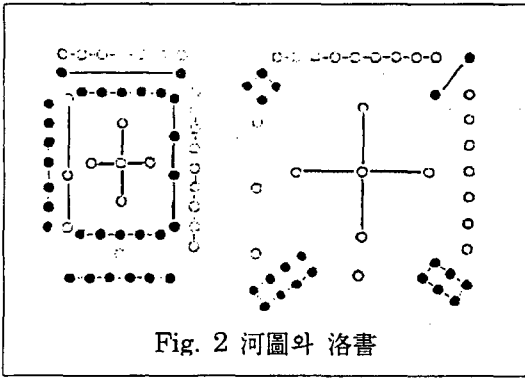


Fig. 2 河圖와 洛書

子者, 十一月, 主左足之太 . 戌者, 九月, 主右足之厥 . 亥者, 十月, 主左足之厥 , 此兩 交盡, 故曰厥 .

:天人相應을 설명하는 것으로, 12月中 陽方인 北·東에 있는 亥·子·丑·寅·卯·辰 여섯 달은, 左足の 三陰, 三陽經을 主하고, 陰方인 南·西에 있는 巳·午·未·申·酉·戌 여섯달은, 右足の 三陰 三陽經을 主한다.

f. 陽繫日月 第四十一<sup>28)</sup>

甲主左手之少陽, 己主右手之少陽, 乙主左手之太陽, 戊主右手之太陽, 丙主左手之陽明, 丁主右手之陽明, 此兩火并合, 故爲陽明. 庚主右手之少 , 癸主左手之少 , 辛主右手之太 , 壬主左手之太陰 故足之陽者, 中之少陽也. 足之 者, 中之太 也. 手之陽者, 陽中之太陽也. 手之 者, 陽中之少 也. 腰以上者爲陽, 腰以下者爲 . 其於五臟也, 心爲陽中之太陽, 肺爲陽中之少 , 肝爲 中之少陽, 脾爲 中之至 , 腎爲 中之太 . 黃帝曰: 以治之奈何. 岐伯曰: 正月二月三月, 人氣在左, 無刺左足之陽. 四月五月六月, 人氣在右, 無刺右足之陽. 七月八月九月, 人氣在右, 無刺右足之 . 十月十一月十二月, 人氣在左, 無刺左足之 .

:天人相應을 설명하고 있다. 天干의 陽方인 北·東에 있는 壬·癸·甲·乙·丙은 左手의 陰陽을 主하고, 陰方인 南·西에 있는 丁·戊·己 庚·辛은 右手의 陰陽을 主한다. 즉, 1·2·3月과 10·11·12月은 人氣가 左에 있으므로 左側에 刺鍼하지 말며, 4·5·6月과 7·8·9月은 人氣가 右에 있으므로

로 右側에 刺鍼하지 말라는 治療와 연결시키고 있다.

g. 九鍼論 第七十八<sup>28)</sup>

黃帝曰: 願聞身形, 應九野, 奈何. 岐伯曰: 請言身形之應九野也, 左足應立春, 其日戊寅己丑. 左脇應春分, 其日乙卯. 左手應立夏, 其日戊辰己巳. 應喉首頭應夏至, 其日丙午. 右手應立秋, 其日戊申己未. 右脇應秋分, 其日辛酉. 右足應立冬, 其日戊戌己亥. 腰尻下竅應冬至, 其日壬子. 六腑膈下三臟應中州, 其大禁, 大禁太一所在之日, 及諸戊己. 凡此九者, 善候八正所在之處, 所主左右上下, 身體有癰腫者, 欲治之, 無以其所直之日潰治之, 是謂天忌日也.

:天人相應을 설명하여 12月的 各 節氣를 人體 左右의 上下에 左陽右陰으로 연결하였고, 이를 身體癰腫을 治療하는데 應用하였다.

③ 「內經」의 方位의 左右에 對한 考察

以上으로 볼 때, 方位的으로 東南이 陽이고 西北方이 陰이라고 하기도 하고,<sup>9)</sup> 天人相應을 說明하면서는, 左에 屬하는 北·東이 陽이고, 右에 속하는 南·西는 陰에 屬하였다. 서로 不一致하는 듯 하여도 變化의 運動性으로 볼때 陽氣始生을 主로하여 보면 左는 陽이고 右는 陰에 配屬되었다. 이는 數理的으로 볼 때와 文王 八卦圖의 卦配列과도 相通한다. 河圖를 보면 (Fig.2) 生數와 成數로 되어 있는데, 生數는 그 數나 그數의 理가 生物의 體內에 깊이 들어 있어 其의 中心을 이루고, 成數는 그 數와 理가 外部的 形體를 이루게 되며 또 나타나게 作用을 한다. 즉, 生數를 內라면 成數는 外가 되며, 生數를 無形이라면 成數는 有形이 되고, 生數가 靜이 된다면 成數는 動이 되며, 生數가 主가 된다면 成數는 客이 된다.<sup>8)</sup> 故로 河圖의 左와 下에 生數 3·1이 配置되고, 右와 上에 生數4·2가 配置되므로 先天,體로 볼 때 左는 陽이고, 右는 陰이된다. 또한 左의 成數는 8이고, 右의 成數는 9이므로 後天, 用으로 볼때 左는 陰이고, 右는 陽이된다. 결국 先天的, 靜的, 變化의 主體로 볼 때 左陽右陰이 되고 後天적 變化의 客體로 볼 때 左陰右陽이 된다. 이것은 또한

“天氣左旋而下降，地氣右旋而上升<sup>13)</sup>” 즉, 天地氣升降에 있어 天氣는 左側으로 돌아서 右로 下降하고, 地氣는 右측으로 돌아서 左로 上升하는 것으로, 天氣는 雨처럼 下降을 爲主하므로 右가 主가 되며, 地氣는 雲처럼 上升을 爲主하므로 左가 主가 되어<sup>26)</sup> 天地氣의 運動面에서, “升者陽” “下者陰”에 依據하여 左가 地氣가 上升하나 陽이 되고, 右는 天氣가 下降하는 것으로 陰이 된다. 이처럼 方位의 左右에도 陰陽의 升降 進退運動이 包含되어 있다.

## 2) 肝肺와 左右

### ① 左肝右肺

#### a. 刺熱篇第三十二<sup>29)</sup>

肝熱病者, 左頰先赤; 心熱病者, 顏先赤; 脾熱病者, 鼻先赤; 肺熱病者, 右頰先赤; 腎熱病者, 頤先赤. 病雖未發, 見赤色者刺之, 名曰治未病.

#### b. 醫學入門<sup>13)</sup>

察兒氣色 肝青心赤脾黃肺白腎黑 凡病 面無黃色 不治 春白夏黑秋赤冬黃者 逆 先分部位 左頰青龍 屬肝 應春青 爲有餘 右頰白虎 屬肺 應秋白 爲不足應秋白 肝熱則先左, 肺熱則先右, 肝肺熱則左右齊發. 兩胃怒左相火右, 厚味動胃火, 則左右俱聾, 忿怒動膽火, 則左耳聾, 色怒動相火, 則右耳聾. 三者, 忿怒爲多. [脇痛] 本是肝家病痛引小腹, 善怒, 宜分左右審實虛,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左肝陽血陰, 右肺陰氣陽. 積者, 陰氣, 五臟所主, 脈沈伏, 或左或右, 發有根, 痛有常處. 肝積左脇下, 曰肥氣, 言風氣有餘, 而血隨氣不行也, 令人脇痛, 瘕瘕, 脾積胃脘稍右, 曰痞氣, 言陽氣爲濕所蓄也, 令人黃疸倦怠, 飲食不爲肌膚, 仍忌熱藥, 肺積右脇下, 曰息賁, 言喘息奔而上行也, 令人咳嗽 肺癰,

#### c. 刺禁論篇第五十二<sup>29)</sup>

黃帝問曰: 願聞禁數. 岐伯對曰: 臟有要害, 不可不察, 肝生於左, 肺藏於右, 心部於表, 腎治於裏, 脾爲之使, 胃爲之市.

:a·b는 顔面을 部分으로 나누어 左脇은 肝으로, 右脇은 肺로, 顔은 心으로, 鼻는 脾에, 腎은

이에, 色變化를 먼저 나타냄을 說明하면서, 脇痛과 五積에서도 左 右에 따라, 肝과 肺의 病으로 診斷하는데 應用하였다. c는 肝은 發生之氣로 陽方인 左에서 生하고, 肺는 肅降之氣로 陰方인 右에서 藏한다고 하여, 左肝右肺의 根源이 되었다.

### ② 方位의 左右中 左肝右肺에 對한 考察

「內經」 <刺禁篇>에서, “肝生於左 肺藏於右 心部於表 腎治於裏 脾爲之使 胃爲之市”라 하였는데, 이것이 後世에 左肝右肺로 約記하여 解剖學的인 位置와 混同을 일으켰다. 이것을 理解하는데 五行에서 木은 東方이며 東方은 左이므로 肝生於左라 한것이고, 金은 西方이고 西方은 右이며 肺의 形이 五臟의 華蓋로 그 用이 在右하여 藏한다 한것이다. 또한 心은 陽中의 太陽이니 그 部가 表가 된 것이고, 腎은 陰中의 太陰으로 裏를 治한다 하였으며 脾는 運化之官으로 輸布하므로 使라 한 것이며, 胃는 모든 物件이 모이는 市라 한 것으로 解剖學的인 位置와 는 아무 關係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sup>6)11)</sup> 五臟機能의 上下左右 配屬은 診斷에도 應用되고 있다. 「內經」 <刺熱篇>의 五臟熱病이 面의 上下左右 및 中央에 心腎肝肺 및 脾로 각각 그 發顯部位를 나타내고, 脇痛 五積에도 左右을 구분하여 肝 肺로 應用된다. 따라서 左肝右肺의 肝과 肺는 단순한 解剖學的인 見地에서의 肝과 肺가 아니며, 五臟全體의 機能的인 側面에서의 發生機能과 肅降機能을 갖는 肝과 肺로 보아야 한다.

## 2. 陰陽之道路인 左右

### 1) 左右者 陰陽之道路

#### ① 左右는 陰陽之道路

#### a. 陰陽應象大論篇第五<sup>29)</sup>

天地者, 萬物之上下也; 陰陽者, 血氣之男女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陰陽者, 萬物之能始也. 故曰: 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使也.

:注에 이르길 萬物은 生於陽成於陰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血이 陰이고 氣가 陽이다. 故로 男子는 陽이나 不傳有氣하고 血이 있어 陽中有陰이 된다. 女子는 陰이나 不傳有血하고 有氣하니 陰中有陽이 된다. 즉, 陰陽이 人에 있어 血.氣가있는 男女가 된다고 보았다. 左右가 陰陽의 道路란 것은 天體의 自東向西의 右旋運動으로 晝夜四時가 生하듯 陰陽二氣는 左右로 升降運動을 하고 있다. 天地六合에 東南은 左이고 西北은 右로 陰陽二氣가 上下四方에서 晝夜循環하는데 左右는 道路가 된다.<sup>9)</sup>

b. 天元紀大論篇第六十六<sup>29)</sup>

天地者, 萬物之上下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金木者, 生成之終始也. 氣有多少, 形有盛衰, 上下相召而損益彰矣... 故陽中有陰, 陰中有陽. 所以欲知天地之陰陽者, 應天之氣, 動而不息, 故五歲而右遷; 應地之氣, 靜而守位, 故六朞而環會. 動靜相召, 上下相臨, 陰陽相錯, 而變由生也.

:天地上下가 相召하며 運動하고 있다.

c. 五運行大論篇第六十七<sup>29)</sup>

帝曰: 善. 論言天地者, 萬物之上下, 左右者, 陰陽之道路, 未知其所謂也. 岐伯曰: 所謂上下者, 歲上下見陰陽之所在也. 左右者 間氣也, 諸上見厥陰, 左少陰, 右太陽; 見少陰, 左太陰, 右厥陰; 見太陰, 左少陽, 右少陰; 見少陽, 左陽明, 右太陰; 見陽明, 左太陽, 右少陽; 見太陽, 左厥陰, 右陽明. 所謂面北而命其位, 言其見也. 帝曰: 何謂下. 岐伯曰: 厥陰在上則少陽在下, 左陽明, 右太陰; 少陰在上則陽明在下, 左太陽, 右少陽; 太陰在上則太陽在下, 左厥陰, 右陽明; 少陽在上則厥陰在下, 左少陰, 右太陽; 陽明在上則少陰在下, 左太陰, 右厥陰; 太陽在上則太陰在下, 左少陽, 右少陰. 所謂面南而命其位, 言其見也. 上下相遷, 寒暑相臨, 氣相得則和, 不相得則病. 帝曰: 動靜何如. 岐伯曰: 上者右行, 下者左行, 左右周天, 餘而復會也. 帝曰: 余聞鬼與區曰: 應地者靜. 今夫子乃言下者左行, 不知其所謂也. 願聞何以生之乎. 岐伯曰: 天地動靜, 五行遷復, 雖鬼與區其上候而已, 猶不能徧明. 夫變化之用, 天垂象,

地成形, 七曜緯虛, 五行麗地. 地者, 所以載生成之形類也. 虛者, 所以列應天之精氣也. 形精之動, 猶根本之與枝葉也, 仰觀其象, 雖遠可知也. 帝曰: 天地之氣, 何以候之. 岐伯曰: 天地之氣, 勝復之作, 不形於診也. 『脈法』曰: 天地之變, 無以脈診. 此之謂也. 帝曰: 間氣何如. 岐伯曰: 隨氣所在, 期於左右. 帝曰: 期之奈何. 岐伯曰: 從其氣則和, 違其氣則病, 不當其位者病, 迭移其位者病, 失守其位者危, 尺寸反者死, 陰陽交者死. 先立其年, 以知其氣, 左右應見, 然後乃可以言死生之逆順.

:左右는 間氣로, 上下는 陰陽氣血의 所在이지만 脈에 드러나지않고 間氣는 人體의 脈에 應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인가? 左右가 上下變化의 代行者란 뜻이 아닐까 한다. 또한 司天·在泉之氣의 左右間氣를 定함에 司天之氣의 左右는 北面하고 在泉之氣의 左右間氣는 南面하여 左右를 定하고 있다. 이처럼 左右는 어디를 面하느냐에 따라 方向이 달라진다.

d. 六元正紀大論篇第七十一<sup>29)</sup>

故至高之地, 冬氣常在, 至下之地, 春氣常在, 必謹察之. 凡此十二變者, 報德以德, 報化以化, 報政以政, 報令以令, 氣高則高, 氣下則下, 氣後則後, 氣前則前, 氣中則中, 氣外則外, 位之常也. 故風勝則動, 熱勝則腫, 燥勝則乾, 寒勝則浮, 濕勝則濡泄, 甚則水閉附腫. 隨氣所在, 以言其變耳. 故上勝則天氣降而下, 下勝則地氣遷而上, 多少而差其分, 微者小差, 甚者大差, 甚則位易氣交, 易則大變生而病作矣.

e. 本病論篇第七十三<sup>29)</sup>

黃帝曰: 升之不前, 余已盡知其旨. 願聞降之不下, 可得明乎. 岐伯曰: 悉乎哉問, 是之謂天地微旨, 可以盡陳斯道, 所謂升已必降也. 至天三年, 次歲必降, 降而入地, 始爲左間也.

: 左間으로부터 시작하여 昇天한다.

f. 難經本義<sup>12)</sup>

經云地氣上爲雲天氣下爲雨 清者, 體之上也, 陽也, 火也, 離中之一陰降, 故午後一陰生, 卽心

之生血也, 故曰清氣爲營. 營. 天之清不降, 天之濁能降, 爲六陰駒以使之下也, 云清氣者, 摠離之體面言之. 濁者, 體之下也, 陰也, 水也, 坎中之一陽升 故子後一陽生, 卽腎之生氣也, 故曰濁氣爲衛. 衛. 地之濁不升, 地之清能升, 爲六陽舉, 使之上也, 濁氣者, 摠坎之體面言之. 兩出地氣雲出天氣此之爲也

:天地升降運動 즉, 地는 體가 濁이나 그 中에 清이 있어 左로 升하고, 天은 體가 清이나 그 中에 濁이 있어 天-之濁氣가 右로 下降하여 天地陰陽의 交를 이루는 陰陽相感의 意이다.

g. 醫宗必讀<sup>14)</sup>

天地造化之氣 水火而已矣 宜平不平偏 宜交不宜分 水性就下 故宜使之上 火性炎上 故使之下 水上火下 名之曰交 交卽爲既濟 不交卽爲未濟 交者生之象 不交者死之象也. 人身之 水火卽 陰陽也 卽 氣血也.

② 陰陽之道路인 左右에 대한 考察

“天氣左旋而下降, 地氣右旋而上升” 즉, 天地氣升降에 있어 天氣는 左側으로 돌아서 右로 下降하고, 地氣는 右側으로 돌아서 左로 上升하는 것으로, 天地와 人體에 있어 上者(火)降하고 下者(水) 升하며 氣交하여 變化를 하고 있다. 이에 左右는 陰陽의 升降之道路로서 氣의 變化循環에 重要한 자리를 차지한다.

2) 男女와 左右

① 男左女右

a. 玉版論要篇第十五<sup>29)</sup>

容色見上下左右, 各在其要. 其色見淺者, 湯液主治, 十日已. 其見深者, 必齊主治, 二十一日已. 其見大深者, 醪酒主治, 百日已. 色夭面脫, 不治, 百日盡已, 脈短氣絕死, 病溫虛甚死. 色見上下左右, 各在其要. 上爲逆, 下爲從. 女子右爲逆, 左爲從; 男子左爲逆, 右爲從. 易, 重陽死, 重陰死.

:陰陽氣血之道에 女子는 屬陰하여 病色이 右에 보이면 本氣가 傷한 것으로 陰人陰病으로 重陰이 되어 易이 되고 病色이 左에 보이면 本氣가 未傷한 것으로 從이 된다. 男子는 女子와

반대이다. 女子는 本氣가 陰으로 右가 本이고 男子는 本氣가 陽으로 左가 本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sup>10)</sup>

b. 大奇論篇第四十八<sup>29)</sup>

胃脈沈鼓滿, 胃外鼓大, 心脈小緊急, 皆隔偏枯. 男子發左, 女子發右, 不瘡舌轉, 可治, 三十日起. 其從者瘡, 三歲起. 年不滿二十者, 三歲死.

c. 難經本義<sup>12)</sup>

虞氏曰 經言男者生於寅, 女者生於申, 謂其父母之年會合於巳上, 男左行十月, 至寅以生, 女右行十月, 至申以生也.....

:男子는 左행하고 女子는 右행하여 男左女右가 된다.

d. 難經本義<sup>12)</sup>

男子生於寅, 寅爲木, 陽也. 女子生於申, 申爲金, 陰也. 故男脈在關上, 女脈左關下, 是以男子尺脈恒弱, 女子尺脈恒盛, 是其常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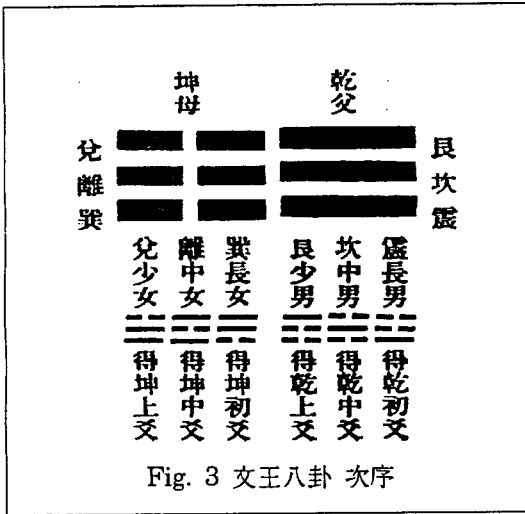
:男女陰陽을 말한다.

e. 醫學入門<sup>13)</sup>

食指風氣 命三關 男左女右 以左陽右陰 故也 然 陰陽 男女均有 兩手 亦當參驗 左應心肝 右應肺脾 於此 變通消息 可也 故 有以左手 紅紋似線者 發熱兼驚 右手 紅紋似線者 脾積兼驚 三又者 肺熱風痰夜啼 凡髮際印堂 青筋 三關虎口紋 故曰熱分虛實 男 搯左 視左 眼上竄 女 搯右 視右 眼下竄 男握拳 大指出外 女握拳 大指入裏 五指 交如薑把者 死 男 引手挽 左直右曲 女 引手挽 右直左曲 凡此 皆順 反之則逆 亦有先搯左而後 雙搯者 但搯順則無聲 搯逆則有聲 其指紋形勢 彎弓入裏者 順 出外者 逆 出入 相半者 難痊 故曰證別逆順 中指熱驚風 男左女右 未定者 必須仔細察脈(男必先左後右 女必先右後左 所以順陰陽升降也) 先單看 以知各經 隱曲次總看 以決虛實 生

:男左女右로 病의 診斷, 治療에 運用하고 있다.

② 男左女右에 대한 考察



「內經」 <玉板論>에서 男女의 發病部位에서 女子는 右가 逆이고 左는 從이며, 男子는 左가 逆이고 右가 從이 되는데, 만약 이것과 易이 되면 重陽, 重陰으로 死한다 하였고, 또 易學原理講話에서는 男女는 生을 유지하기 위한 器官은 다 같으나, 生을 위해 活動하는 方式이나 그 性質에 있어서는 다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한사람에 있어 頭尾는 바뀌지 않고 左右만 回轉的으로 作用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男左女右에 대해 追論하면 八卦 中 艮, 坎, 震은 小男 中男, 長男으로 乾을 본땀으며, 兌, 離, 巽은 小女, 中女, 長女로 모두 坤을 본땀다.<sup>32)</sup>(Fig.3) 즉, 男은 乾을 본땀으며 女는 坤을 본땀다 艮, 坎, 震은 乾과 함께 北, 東 즉 左에 위치하고 兌, 離, 巽은 坤과 함께 南, 西 즉 右에 위치한다. 대표적으로 離卦(-)는 二陽一陰으로 女이고, 坎卦(-)는 二陰一陽으로 男이다. 이것을 文王八卦圖에서 보면 相對的, 위치적으로 보면 女가 上에 있고, 男이 下에 있어, 氣의 升降運動에서 男은 下에서 左를 主하여 升하고 女는 上에서 右를 主하여 降하므로 女가 右이고 男이 左가 된다. 즉, 陰陽升降에 따라 一陽이 下에서 左로 進하므로 男이 左가 되고 一陰은 上에서 右로 退하므로 女가 右가 된다.<sup>32)</sup> 이외에 妊娠되는 胎兒의 性別과 妊娠後의 男女를 區別하는 方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剛日

의 陽時에 感하여 左子宮에 着床이 되면 男子가 되고, 柔日의 陰時에 感하여 右子宮에 着床하면 女子가 되며, 妊娠後에 婦人의 左乳房에 有核이면 男兒요, 右乳房에 有核이면 女兒이며, 또한 脈으로 보아 左脈이 盛하면 男兒요 右脈이 盛하면 女兒라 하여 男左女右의 理論을 뒷받침하고 있다.<sup>26)</sup> 이로써 卦象을 통해 보면 方位의 左陽右陰에서처럼 先天的, 變化의 主體로 볼 때 男陽女陰하여 男左女右가 되고, 後天的 機能的, 變化의 客體로 보아도 男이 陰이 되고 女는 陰이 되어 또 男左女右가 된다. 이것이다는 根源은 보기 어려우나 여러 文獻에서 男左女右는 應用되고 있다.

### 3) 氣血과 左右

#### ① 左血右氣

##### a. 醫學入門<sup>13)</sup>

\*人受天地之氣以生 天之陽氣爲氣 地之陰氣爲血 故氣常有餘 血常不足

\*口不能言肢不持, 手足不能運動, 乃血弱不能營筋與舌也. 左爲死血留滯經絡與少血, 四物湯少加防風羌活主之, 瘀血加桃仁 紅花. 痰與氣虛身右居. 血虛則痰火流注於左而爲滯, 氣虛則痰火流注於右而爲滯, 急治則愈, 久則痰火鬱結難治. 偏左痛者, 多血虛, 或有火, 或風熱, 偏右痛者, 多氣虛, 或鬱滯, 或痰, 或風濕. 要知正痛, 常兼左右病邪. 凡頭痛, 久則爲風也. 濕痰痛密多右邊, 濕痰, 發則痛密無間, 二陳湯加南星, 蒼朮, 川芎及細辛少許. 血虛晚重爲左病. 血虛者, 朝輕夕重, 古芎歸湯, 或四物湯加荊, 防, 白芷, 薄荷. 若氣虛者, 朝重晚輕, 多屬右邊, 宜補中益氣湯加芎辛. 陽虛甚者, 單白芷丸, 用參, 附煎湯下.

##### b. 醫宗必讀<sup>14)</sup>

\*天地造化之氣 水火而已矣 宜平不平偏 宜交不宜分 水性就下 故宜使之上 火性炎上 故使之下 水上火下 名之曰交 交卽爲既濟 不交卽爲未濟 交者生之象 不交者死之象也. 人身之 水火卽 陰陽也 卽 氣血也.

\*脇痛 左肝陽血陰, 右肺陰氣陽. 實者, 肝氣實也, 痛則手足煩躁不安臥, 小柴胡湯加芎 歸 白



芍 蒼朮青皮 龍膽草, 或單黃連丸虛者, 肝血, 虛也, 痛則悠悠不止, 耳目眩暈, 善恐, 如人將捕, 四物湯加柴胡梢, 或五積散去麻黃, 加青木香 青皮.

\*左爲怒火與死血, 大怒氣逆及謀慮不決, 或外感風邪, 皆令肝火動甚, 脇痛難忍, 古黃連丸 當歸龍薈丸. 輕者, 小柴胡湯加黃連 牡蠣 枳殼.

\*左死血兮右氣積, 治左破血爲主, 海石丸, 或當歸龍薈丸料五錢, 加桃仁 薑黃各一兩, 蜜丸. 治右調氣, 青皮湯 木香分氣丸. 有積者, 消積正元散, 紅丸子, 小阿魏丸, 或當歸龍薈丸 保和丸, 俱加鵝鳩屎.

:左血右氣가 頭痛, 脇痛, 手足不能에서 左瘀血 右濕痰으로 治療原則으로 使用되고 있다.

## ② 左血右氣에 대한 고찰

陰陽氣血之體는 乾坤이고, 陰陽氣血之用은 水.火이며 人身의 水火는 陰陽으로 氣血이라<sup>17)</sup> 즉, 氣血은 人體의 陰陽 運動에 의한 變化產物이면서 人體의 陰陽氣血 運動의 調節因子인 것이다. 氣血에 대해서는 “血은 屬水하고 氣는 屬火하니 血陰而氣陽也라” 하였고 “氣者는, 血之使也니 氣行卽血行하고 氣至卽 血至하며.....고로 人之一身에 調氣爲先이고 調血次之라 이것 역시 先陽後陰의 뜻이다<sup>15)</sup>라 하고 또 “人受天地之氣以生 天之陽氣爲氣 地之陰氣爲血 故氣常有餘 血常不足”라 하여 氣가 陽이고 血이 陰임을 밝히고 있으나 “離中의 虛에 眞陰이 存焉하고 坎中의 滿에 眞陽이 存焉하니”라 하며 “氣屬陽하니 上天하여 左旋하고 血屬陰하니 下地하여 右旋이라”하여 氣血의 左右陰陽氣血에 대해 모호한 감을 취하고 있다.<sup>26)</sup> 이에 醫門棒喝의 診脈綱要를 살펴보자. “무릇 脈은 陰陽氣血 二氣가 유행하는 象이므로, 그 氣가 升함이 陽이고, 降함이 陰이 되며, 나감이 陽이 되고, 들어움이 陰이 된다. (중략) 或者가 말하길 “陽은 左로부터 升하고 陰은 右로부터 降하니, 그렇다면 左脈의 氣는 升만 있고 降은 없으며 右脈의 氣는 降만 있고 升은 없습니까? 내가 말하길; 그렇지 않으니, 바로 陰陽氣血의 道가 變化無窮하기 때문이다. 故로 마땅히 至理를 구해야

하고 고집해선 안된다. 左右로 陰陽氣血을 나누면 陽은 左로부터 升하고 陰은 右로부터 降하며, 上下로 陰陽氣血을 나누면, 陽은 北에서 升하여 南에서 旺하며, 陰은 南에서 降하여 北에서 旺하다. 대개 陰陽은 太極에 互根하고, 太極의 體는 둥글기때문에 氣의 유행은 升降하는 가운데 轉旋함이 있고 旋轉하는 가운데 升降이 있어서 圓體에 應合되어 있다. 그것이 서로 뿌리가 되므로 陰中에 陽이 있고 陽中에 陰이 있으니, 二氣가 互旋하여 升中에 降이 있고 降中에 升이 있는데 ... ..左또한 降이 있으나 升氣의 旺함에 미치지 못하는 뿐이며, 右또한 升이 있으나 降氣의 많음에 미치지 못할 뿐이다.<sup>16)</sup> 여기서 보듯 人體의 本이면서 變化물질인 氣血은 左의 陽氣가 升하는 가운데 血이 있고, 右의 陰氣가 降하는 가운데 氣가 있어 人體의 陰陽氣血조절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文王八卦의 乾卦에서 始하여 艮卦·震卦가 二陰一陽으로 左에 있고 坤卦를 始하여 二陽一陰인 離·兌卦가 右에 있는 것과 通하고, 또한 數理的으로 볼 때 左엔 先天的으론 生水 1·8이 있고 後天的으론 成數 6·8 陰數가 있으며, 右엔 先天的 生水 2·4 陰數가 있고 後天的 陽數 7·9가 있는 것과 相通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金<sup>17)</sup>은 左血右氣는 左로 陰(水)上升하고, 右로 陽(火)가 下降하는 水升火降하는 調和의 機를 설명한다고 하였다. 故로 左血右氣는 變化生動하는 人體의 陰陽氣血의 交會하는 모습인 것이다. 이 左血右氣 理論은 여러 문헌을 基礎하여 臨床에서 人體를 左右로 구분하여 左瘀血·右痰으로 分析하여 治療에 多用되고 있다.

## 4) 左腎水右命門

### ① 左腎水右命門

#### a. 難經本義<sup>12)</sup>

藏各有一而, 腎獨有兩者何也? 腎陽者, 非皆腎也,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 命門者諸精神之所舍, 原氣之所繫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系胞, 故知腎有一也.

:左腎水右命門이나 서로 氣가 通하므로 腎은 하나다라고 하였다.

b. 醫學入門<sup>13)</sup>

\*腎有兩枚, 分居兩手尺部, 左爲腎, 右爲命門.

\*若左尺脈虛弱而細數者, 是左腎之眞陰不足也, 用六味丸, 右尺脈遲輕, 或沈細而數欲絕者, 是命門之相火不足也, 用八味丸.

\*藏亦有六者, 謂腎有兩藏, 左爲腎, 右爲命門. 命門者, 精神之所舍也. 男以藏精, 女以繫胞, 其氣與腎相通, 故言藏亦有六也.

\*腎有兩枚, 左屬水而右屬火, 重各九兩, 右主女而左主男..... 男左腎爲主, 女以右腎爲主

② 左腎水右命門에 대한 고찰

上述한 바와 같이 左腎水右命門說은 難經에서 唱導되어, 明代以前的 王叔和, 薛己, 李梴 등으로 이어지는데, 그 內容을 살펴보면, 命門은 精神之所使, 原氣之所繫로 人體生命의 根本이 되며 男子의 藏精하고 女子의 系胞하는 人體의 生殖機能인데, 命門과 腎을 左右로 區分하고 있지만 生理機能上 명확하게 分割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以後 虞搏, 李時珍, 孫一奎, 趙獻可, 張景岳으로 이어지면서 左右개념이 없어지고, 醫易同源의 角度에서 左腎水右命門이 아닌 兩腎命門說과 腎間命門說이 擡頭되었다. 命門에 대한 實驗研究 結果를 보면, 대체로 命門(腎)의 陰陽偏勝偏差는 內分泌機能 植物神經機能및 energy代謝에 대한 일정한 規律性이 있으며, 命門(腎)의 陰虛陽升火亢者는 신상선피질 hormon의 分泌量이 增加하고 감상선機能이 亢進되며, 교감신경의 흥분성이 증강되고 energy 대사가 증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8)</sup> 現代中醫界는 비교적 命門學說에 대해 難經의 左腎水右命門을 기원으로하나, 腎과 命門은 一而二이고 二而一로 相互作用하여 生命의 本이며 生化의 原이 된다고 보고 있다.<sup>19)</sup>

5) 脈과 左右

① 脈의 左右

a. 脈要精微論篇第十七<sup>29)</sup>

中附上, 左外以候肝, 內以候鬲; 右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

外以候心, 內以候膻中. 前以候前, 後以候後.

:附에 대해 각 醫家마다 寸口와 尺膚로 보고 있다. 脈과 臟腑를 左右에 配屬하고 있다.

b. 病能論篇第四十六<sup>29)</sup>

帝曰: 有病厥者, 診右脈沈而緊, 左脈浮而遲, 不然病主安在. 岐伯曰: 冬診之, 右脈固當沈緊, 此應四時, 左脈浮而遲, 此逆四時. 在左當主病在腎, 頗關在肺, 當腰痛也. 帝曰: 何以言之. 岐伯曰: 少陰脈貫腎絡肺, 今得肺脈, 腎爲之病, 故腎爲腰痛之病也.

c. 五行子母相生圖<sup>12)</sup>

右手寸太陰陽明金生左尺足太陽少陰水, 太陽少陰水生左關足厥陰少陽木, 厥陰少陽木生左寸水太陽少陰火, 太陽少陰火生右尺水心主少陽火, 手心主少陽火生右關足太陰陽明土, 足太陰陽明土復生右寸手太

陰陽明金, 此皆五行子母更相生陽者也

:脈의 左右臟腑 配屬도이다.

d. 脈經<sup>20)</sup>

\*關前一分人命之主 左爲人迎 右爲氣口 神門訣斷 兩在關後 人無二脈 病死不愈

\*左主司府 左大順男 右大順女

\*肝心出左 脾肺出右 腎與命門俱出尺部. 心部在左手關前寸口 肝部在左手關上 腎部左右手關後尺中 肺部在右手關前寸口 脾部在右手關上 腎部在右手關後尺中 左屬腎 右爲子戶名曰三焦

e. 類證活人書<sup>30)</sup>

太谿穴是足少陰腎之經 男子以右腎爲命門 女子以左腎爲命門 命門者 精神所舍主生死之要 病人有命門脈者活 無者死

f. 東垣十種醫書<sup>21)</sup>

古人以脈上辨內外傷于人迎氣口 人迎脈大于氣口爲外傷 氣口脈大于人迎爲內傷 外感風寒皆有餘之證 氣病必見于左手 左手于表 內傷飲食及飲食不節 勞役不節 氣不足之病也 必見于右手 右手主裏

g. 醫學入門<sup>13)</sup>

\*腹癰 生於肚腹皮裏膜外 左關脈 洪數 而腹痛 甚者 是也 膏梁 七情 火鬱 以致脾虛氣滯而成 小兒 多因驚積 虧損而成 食積疝氣 相類 不可誤治

\*婦人大病藥有序，產前安胎產後補，然後用藥療傷寒，病稍退時藥即去。又云：氣口緊盛下爲宜，人迎緊盛汗乃是，左手關脈若浮緊，當救血室和榮衛，只宜發汗不宜下，汗則液通病去矣。但傷寒藥皆不必盡劑，與雜病不同

h. 萬病回春<sup>33)</sup>

\*齒痛腎虛尺濡而大火炎尺洪疎搖豁壞右寸關數或洪而弦此屬腸胃風熱多涎

\*左脈不和爲病在表 爲陽主四肢 右脈不和爲病在裏 爲陰主腹臟 以此推之

\*眼本火病心肝數洪右寸關見相火上衝

② 脈의 左右에 대한 考察

脈에서 左右는 主로 寸關尺의 五臟六腑配屬과 男左女右, 左腎水右命門, 外傷과 內傷의 區別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寸關尺의 五臟配屬은 「內經」에서 尺內兩方은 季脇, 尺外는 腎, 尺裏는 腹中 附上(關) 左外는 肝, 內는 膈, 右外는 胃. 內는 脾, 上附上(寸) 右外는 肺, 內는 胸中, 左外는 心, 內는 膻中을 候한다고 하였고, 難經에서는 左腎水右命門이라 하여 尺內에서 命門을 候한다 하였으며 脈經에서는 右尺에서 三焦 子戶를 候한다 하였다. 이 中 문제되는 것은 尺膚를 어떻게 보느냐와 寸關尺을 上 中 下 焦로 보기도 한 것이다. 男左女右로 男子의 命門은 右腎이므로 右의 太谿를 女子의 命門은 左腎이므로 左의 太谿를 살펴 生死를 구분하고, 左右脈을 비교하여 左脈이 右脈보다 大하면 外傷이고 右脈이 左脈보다 大하면 內傷이라 하여 內, 外傷을 구분하는데 사용되었다.<sup>22)</sup>

3. 左右를 利用한 鍼治療

① 左右를 利用한 鍼治療

a. 調經論篇第六十二<sup>29)</sup>

燔鍼劫刺其下及與急者; 病在骨, 燔鍼藥熨; 病不知所痛, 兩蹻爲上; 身形有痛, 九候莫病, 則繆

刺之; 痛在於左而右脈病者, 巨刺之. 必謹察其九候, 鍼道備矣

b. 繆刺論篇第六十三<sup>29)</sup>

今邪客於皮毛, 入舍於孫絡, 留而不去, 閉塞不通, 不得入於經, 流溢於大絡, 而生奇病也. 夫邪客大絡者, 左注右, 右注左, 上下左右與經相干, 而布於四末, 其氣無常處, 不入於經俞, 命曰繆刺. 帝曰: 願聞繆刺, 以左取右, 以右取左奈何. 其與巨刺何以別之. 岐伯曰: 邪客於經, 左盛則右病, 右盛則左病, 亦有移易者, 左痛未已而右脈先病, 如此者, 必巨刺之, 必中其經, 非絡脈也. 故絡病者, 其痛與經脈繆處, 故命曰繆刺. 帝曰: 願聞繆刺奈何. 取之何如. 岐伯曰: 邪客於足少陰之絡, 令人卒心痛暴脹, 胸脇支滿, 無積者, 刺然骨之前出血, 如食頃而已; 不已, 左取右, 右取左, 病新發者, 取五日已. 邪客於手少陽之絡, 令人喉痺舌券, 口乾心煩, 臂外廉痛, 手不及頭, 刺手中指次指爪甲上, 去端如韭葉各一痛, 壯者立已, 老者有頃已. 左取右, 右取左, 此新病數日已.

邪客於足厥陰之絡, 令人卒疝暴痛, 刺足大指爪甲上, 與肉交者各一痛, 男子立已, 女子有頃已. 左取右, 右取左. 邪客於足太陽之絡, 令人頭項肩痛. 刺足小指爪甲上, 與肉交者各一痛, 立已, 不已, 刺外踝下三痛. 左取右, 右取左, 如食頃已

邪客於手陽明之絡, 令人氣滿胸中, 喘息而支脹, 胸中熱, 刺手大指次指爪甲上, 去端如韭葉各一痛. 左取右, 右取左, 如食頃已

邪客於臂掌之間, 不可得屈. 刺其踝後, 先以指按之痛, 乃刺之, 以月死生爲數, 月生一日一痛, 二日二痛, 十五日十五痛, 十六日十四痛. 邪客於足陽蹻之脈, 令人目痛從內眦始, 刺外踝之下半寸所各二痛. 左刺右, 右刺左, 如行十里頃而已. 人有所墮墜, 惡血留內, 腹中滿脹, 不得前後, 先飲利藥, 此上傷厥陰之脈, 下傷少陰之絡, 刺足內踝之下, 然骨之前血脈出血, 刺足附上動脈. 不已, 刺三毛上各一痛, 見血立已. 左刺右, 右刺左. 善悲驚不樂, 刺如右方

邪客於手陽明之絡, 令人耳聾, 時不聞音, 刺手大指次指爪甲上, 去端如韭葉, 各一痛, 立聞. 不

已, 刺中指爪甲上與肉交者, 立聞. 其不時間者, 不可刺也. 耳中生風者, 亦刺之如此數. 左刺右, 右刺左

凡痺往來行無常處者, 在分肉間痛而刺之, 以月死生爲數, 用鍼者, 陰氣盛衰, 以爲疔數, 鍼過其日數則脫氣, 不及日數則氣不瀉. 左刺右, 右刺左, 病已止; 不已, 復刺之如法, 月生一日一疔, 二日二疔, 漸多之, 十五日十五疔, 十六日, 十四疔, 漸少之

邪客於足陽明之經, 令人肌衄上齒寒. 刺足中指次指爪甲上, 與肉交者各一疔. 左刺右, 右刺左

邪客於足少陽之絡, 令人脇痛, 不得息, 欬而汗出, 刺足小指次指爪甲上, 與肉交者各一疔, 不得息立已, 汗出立止, 欬者溫衣飲食, 一日已. 左刺右, 右刺左, 病立已. 不已, 復刺如法

邪客於足少陰之絡, 令人噤痛不可內食, 無故善怒, 氣上走黃上, 刺足下中央之脈各三疔, 凡六刺, 立已. 左刺右, 右刺左. 噤中腫, 不能內唾, 時不能出唾者, 刺然骨之前, 出血立已. 左刺右, 右刺左

邪客於足太陰之絡, 令人腰痛, 引少腹控眇, 不可以仰息, 刺腰尻之解, 兩腫之上, 是腰俞, 以月死生爲疔數, 發鍼立已. 左刺右, 右刺左

邪客於五臟之間, 其病也, 脈引而痛, 時來時止, 視其病, 繆刺之於手足爪甲上. 視其脈, 出其血, 間日一刺. 一刺不已, 五刺已. 繆傳引上齒, 齒唇寒痛, 視其手背脈血者去之, 足陽明中指爪甲上一疔, 手大指次指爪甲上各一疔, 立已. 左取右, 右取左

繆刺法은 病이 絡에 있을 때 左病에 右를 取하고, 右病에 左를 取하는 方法이다. 여기서 注目해야 할 것은 治療穴이 대부분 五輸穴중 井穴과 榮穴(然谷穴)이고 左右를 交叉하여 治療한 點이다. 이것은 요즘의 五行鍼이 五輸穴을 利用하고 左右를 交叉 治療한 것과 聯關性이 있을 듯하다.

c. 經筋 第十三<sup>28)</sup>

從左之右, 右目不開, 上過右角, 并躡脈而行, 左絡於右, 故傷左角, 右足不用, 命曰維筋相交. 治在燔鍼 刺, 以知爲數, 以痛爲輸, 名曰孟春痺

也. 癲狂 第二十二 癲疾始作, 而引口啼呼喘悖者, 候之手陽明太陽. 左强者, 攻其右, 右强者, 攻其左, 血變而止. 厥病 第二十四 耳鳴取手足中指爪甲上, 左取右, 右取左, 先取手, 後取足

d. 舍岩道人鍼灸要訣<sup>23)</sup>

\*左或 右의 한쪽 머리가 아픈 증 속칭 쪽골 치 아픈 증 風池 絶骨瀉 左痛이면 右를 右痛이면 左를 治한다.

\*한 남자가 胃脘痛이 久年인데 오른쪽이 勝하므로 左治하여 나왔다.

\*한 부인이 腹痛, 泄瀉하고 食滯와도 같은데 左邊症이 甚하여 肝鬱로 治하였더니 2度에 快差하였다.

\*脇痛에 左에 있으면 肝火와 瘀血이 있고 右에 있으면 脾火와 痰食이 있다.

\*眼疾에 臨泣三間 合谷 太衝 行間을 瀉함에 左取右 右取左

\*上胞腫 下胞腫에 隱白 臨泣을 左取右 右取左

\*男子左方爲陽이오, 女子右方爲陽이라. 午前時方爲陽이오 午後時方爲陰이라. 男子는 왼쪽으로 비비는 것이 補이고 女子는 右方으로 비비는 것이 補가 된다.

\*癰疾發時動手는 肝實로 用勝格하라. 右邊手足先動搖도 乃是肺實亦當勝이라.

e. 針灸聚英<sup>31)</sup>

\*午前要知寒與熱左撚爲補 右爲瀉 提鍼爲熱 插爲寒

\*後午要 知寒與熱 右撚爲補 左爲瀉 插鍼爲熱 提爲寒

② 左右의 鍼治療에 대한 考察

「內經」 <繆刺篇>에 根源하여 後代 몇 文獻에 左治右 右治左한 경우가 보이나, 점점 鍼灸 配穴의 한 形態로 자리잡아 왔고, 最近의 舍岩鍼, 八體質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內經」 <繆刺篇>에서 主로 五輸穴의 井, 榮穴이 使用된 것과 요즘의 五行鍼과 聯關性이 있어 보인다. 左右 鍼治療는 陰陽昇降之道路인 左右를 利用하여 陰陽의 平衡을 維持코자 한 것으

로 사료된다.

### Ⅲ. 結 論

「內經」을 中心으로 몇 文獻을 통해 東醫學에 나타난 左右의 內容을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方位의 左右는 南面하여 왼쪽, 동쪽이 左이고, 오른쪽, 서쪽이 右로서 設定되었는데 左陽右陰은 陽의 運動을 위주로 說明한 문구로 數理와 상통한다. 左肝右肺는 五臟을 五行과 연결하여 木인 肝을 左에 金인 肺를 右에 配屬하여 肝의 發生機能과 肺의 肅降機能 즉, 機能的 肝과 肺로 보아야 한다.
2. 陰陽之道路인 左右는 天地升降運動 즉, 地之清氣는 左로 升하고 天之濁氣는 右로 下降하며 天地陰陽의 交를 이루고 人體에서는 血이 左로 升하고 氣가 右로 降하며 變化循環 하는데 重要한 道路가 된다는 것이다. 男左女右는 男은 乾卦에서 女는 坤卦에서 出하여 變化의 主體로 볼 때 一陽이 左로 升하므로 男左가 되고 一陰이 右로 降하므로 女右가 된다. 左血右氣는 人體陰陽 즉, 水火(氣血)의 升降運動에서 水升火降의 變化象(變化의 客體)을 說明하는 것이다. 左腎水右命門은 難經에서 唱導되어 明代以前까지 이어지는데 命門과 腎을 左右로 구분하고 있지만 生理機能상 명확하게 分割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는 水升火降하는 陰陽升降運動의 한 表現이다. 脈에서 左右는 主로 寸關尺의 五臟六腑配屬과 男左女右, 左腎水右命門, 外傷과 內傷의 區別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左血右氣의 실제적 表現이라 할 수 있다.
3. 左右를 이용한 鍼治療는 主로 井, 榮 등 五輸穴을 이용하여 左治右 右治左하여 陰陽의 平衡을 維持코자 한 것으로 “左右者 陰陽升降之道路”와 밀접하게 關係한다.

以上을 整理하면 左右는 左陽右陰, 左肝右肺,

男左女右(變化의 主體로 陽의 運動을 表現한 것)와 左血右氣, 左腎水右命門, 脈에서의 左右(變化의 客體로 陽에 應하는 陽中陰을 表現한 것) 등 여러면으로 說明되고 있지만 결국 陰陽升降運動之道路로서 人體의 陰陽(氣血)平衡의 重要한 길이 되고 있는 것이다. 故로 左右를 이용한 鍼治療는 지렛대 原理와 같이 左病에 右를, 右病에 左를 取하여 人體 陰陽平衡을 維持코자한 것으로 생각된다.

### 參考文獻

1. 李變祺. 臟象學說應用<易>. 福建中醫學院學報. 1996 ; 6(3) : 40-1.
2. 劉北林. 肝生于左肺藏于右之我見. 四川中醫. 1996 ; 14(3) : 15-6.
3. 吳春林. 疝腮驗方. 山西中醫. 1996 ; 12(1) : 27-8, 41.
4. 李少勃, 毋瑞賢. 曲池穴巨刺法治療肋間神經痛23例. 河南中醫. 1996 ; 16(2) : 51.
5. 山東中醫學院. 東洋醫學叢書. 서울 : 一中社. 1990 : 3-4, 11.
6. 劉維廣. 讓古典醫籍中的美學思想閃光. 醫古文知識. 1994 : 4-5.
7. 民族文化大百科辭典. 傳統文化研究會. 263-6.
8.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 東方文化. 1988 : 94, 140-3, 164.
9. 鄭士德. 內經. 上海 : 知陰出版社. 53, 58.
10. 李炳文.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 成輔社. 1983 : 78, 358.
11. 尹吉永. 東醫學의 方法論研究. 서울 : 成輔社. 1983 : 16, 214.
12. 滑水. 吳墳村編著. 難經本義. 臺南 : 世一書局印. 中華民國73年 : 7, 8, 53.
13. 李槲編著. 編註醫學入門. 小兒文 陰火論. 서울 : 大星文化社. 1989 : 65, 91-3, 101, 351, 363-6, 389-93, 474-6, 481.
14. 李仲梓. 醫宗必讀. 水火陰陽論. 서울 : 一中社. 1991 : 7.
15. 許浚. 東醫寶鑑. 서울 : 南山堂. 1980 :

- 139, 145.
16. 章虛谷. 醫門捧喝(上). 서울 : 大星文化社. 1989 : 379-81.
  17. 金廣中. 東醫學에 나타난 人體生理現象에 관한 考察. 東醫生理學會誌. 1983 ; 1(1) : 101-5.
  18. 金奎烈. 張景岳의 命門學說에 관한 文獻的 考察. 慶熙大碩士學位論文. 1991 ; 7-8.
  19. 中醫學三百題篇委會. 中醫學三百題.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89 : 47-51.
  20. 王叔和原著. 李炳國譯. 王叔和脈經. 서울 : 現代鍼灸院圖書出版. 1992 : 6.
  21. 李杲. 東垣十種醫書. 內外傷辨卷上. 서울 : 大星文化社. 1982 : 29.
  22. 金泰熙. 內經의 脈診斷과 後代 醫家說의 比較研究. 慶熙大博士學位論文. 1987 : 8.
  23. 舍岩禪師. 國文譯註. 舍岩道人鍼灸要訣(全). 1991 : 94-8, 138, 239-40.
  24. 沈永. 八象體質鍼. 서울 : 東醫科學院. 1995 : 38.
  25. 韓寬淑. 相對性鍼灸法. 서울 : 明文堂. 1989 : 87-235.
  26. 金敬哲. 人體의 左右區分에 관한 陰陽論的 考察. 碩士課程中間發表. 1986.
  27. 中國醫學文. 中醫. 1995 ; 19(2) : 5, 58.
  28. 洪元植校合.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 東洋醫學研究阮 出版部. 1985.
  29. 洪元植校合.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30. 朱肱. 增註類症活人暑. 서울 : 南山堂. 1987 : 85.
  31. 鍼灸醫學典籍大系. 針灸聚英發揮. 東京 : 科學總合研究所. 1979 : 259-60.
  32. 金赫濟校閱. 原本集註 周易. 서울 : 明文堂. 1978 : 2-6.
  33. 國譯萬病回春. 龔廷賢著. 서울 : 癸丑文化史. 1983 : 63.